

중국, 희토류 불법생산 단속 강화

2011년 생산량 9만3800톤 소진 ... 할당량 초과 생산하면 면허 취소

중국 정부가 할당량 이상을 생산하는 희토류 생산자들을 처벌하기로 하는 등 희토류 생산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홈페이지(www.miit.gov.cn)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할당된 희토류 생산량을 초과해 생산하거나 환경파괴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할당량과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8월8일 밝혔다.

아울러 광산들도 허가 없이 광석을 파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가공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한 광산에서 희토류 광석을 사다가 적발됐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유기업 Minmetals이 정부의 생산량 통제지침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토류 생산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나온 조치로,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희토류 생산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1년 희토류 생산량을 9만3800톤으로 결정했으나 이미 생산량 한도가 소진되면서 대다수 생산시설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금속의 97%를 생산하고 있으며, 희토류는 신에너지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국방 등 전략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2010년 불법적 희토류 생산은 4만톤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중국 정부의 조치로 해외 희토류 시장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자는 과도한 희토류 생산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불법 생산자들을 통제하고 전략적인 비축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희토류 분야의 가격결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09>